

중부일보

HOME > 사람들 > 사람들

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, 화성호 및 방조제 일대 '내고향 물살리기' 환경정화 활동 진행

✎ 박병준 | ☎ 승인 2022.04.20 16:34



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은 20일 화성방조제 및 화성호 일대를 대상으로 '내고향 물살리기'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.

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직원들 및 New-KIA 희망봉사단 30여 명이 참여했으며, 불법투기된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화성호 내 불법 낚시를 근절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전개했다.

또한 인근 농민을 대상으로 ▶가축분뇨, 수로에 배출하지 않기 ▶미숙퇴비 사용하지

않기 ▶ 폐수 무단 배출하지 않기 등 수질보전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.

강원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은 "내고향 물 살리기 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보전과 개선에 기여하고, 보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박병준기자



박병준 pbj4147@joongboo.com

저작권자 © 중부일보 - 경기·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